



7명에게 자신의 장기를 보시한 김상진 불자의 생전 모습

### 자비의 '마음'도 보시합니다

12월 초, 국내최초로 뇌사상태에서 환자 7명에게 장기를 기증해 화제를 모았던 김상진(31)씨가 평소에도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고 싶다"는 말을 해 온 것으로 뒤늦게 전해져 감동을 주고 있다.

11월 29일 갑작스러운 뇌종양 파열로 뇌사상태에 빠진 김상진 씨는 서울 구룡사 신도인 어머니 박기월(53) 씨와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며 산 보법적인 불자. 그런 그가 당일 새벽 5시쯤 서울 신당동 집에서 잠을 자던 중 갑자기 오른쪽 머리에 통증을 호소하며 의식을 상실, 인근 순천향병원에 후송됐으나 결국 뇌사를 선고받고 평소 신념에

### 김상진 불자 뇌사 후 장기기증 7명에게 새 생명

따라 심장과 간장 등 장기와 각막을 환자 7명에게 기증했다.

김 씨가 장기기증을 서약한 것은 대학에 다니던 1999년. 어머니 박 씨가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내 죽은 육신이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데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면 가까이 장기를 보시하겠다"며 장기기증과 각막기증을 서약, 이에 아들 김 씨도 뜻을 함께했다. 박 씨는 "아들은 군복무 중에도 각종 질환으로 고통 받는 이들을 돕기 위해 헌혈을 많이 해 대한적십자 표창도 여러 번 받았을 만큼 사람이 많은 아이였다"며 "생명을 나누고 떠날 수 있어 편히 눈을 감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씨의 심장은 확장성 심근증을 앓고 있는 박모(45)씨에게, 위장은 소아형 당뇨병 투병중인 임모(44)씨에게, 간은 급성간부전증 환자 이모(31)씨에게 이식됐다. 또한 각막은 박모(20)씨와 1명, 신장은 윤모(34)씨와 1명에게 한쪽씩 이식됐다. 김은경 기자

김상진 기자

# 충남 서해안 불교시대 열린다

## 국토정책위 1조505억 투입 내포문화권 개발

### 불교 중심 테마 기행지역 추진

서산·보령·홍성·예산·태안·당진 등 충남 서해안 6개 시·군이 1조505억원이 투입되는 내포(內浦) 문화권 개발 '특정 지역'으로 지정돼 이 지역의 사찰 및 불교 문화재 보존 정비를 포함한 불교문화 종합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는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간 6개 시·군 내포지역의 문화유적과 관광개발, 도로망 확충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월 6일 밝혔다.

내포문화권은 서산과 예산 경계에 남북으로 길게 뻗은 가야산 주변지역으로, 서산 마애삼존불, 수덕사 등의 불교유적이 산재해 있어 불교문화유적의 보고로 평가받고 있다.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은 △서산 마애삼존불을 중심으로 한 가야산권 △서해 중심의

해양권 △홍성을 중심으로 한 내륙권 △천주교 유적과 연계한 북부권 등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총 46개 분야의 사업이 추진된다.

이 가운데 불교계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은 가야산권. 가야산권 개발은 마애삼존불 등 가야산을 중심으로 분포돼 있는 역사자원에 대한 보존 및 정비와 함께 이 지역을 역사·테마 기행지역으로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46개 분야의 개발사업에는 9개의 문화유적 정비사업과 2개의 기반시설 확충사업 등 불교관련 사업들이 포함돼 있다. 정비사업 해당 지역과 사찰은 △가야산사적지 주변 △마애삼존불 △보원사지 △예산 대련사 △개심사 △만해 한운은 생가 △예산 불산 사면석불 △예산 화암사 △당진 안국사 등이며,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개심사와 대련사의 진입도로가 개설된다.

따라서 서산 마애삼존불·개심사·보원사지-예산 수덕사-홍성 만해 한운은 생가 등을 잇는 불교문화관광벨트가 조성돼 서

해안 지역의 불교문화정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내포문화권 개발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주·부여의 백제문화권 종합개발과 더불어 충남도가 21세기 2대 사업으로 추진해 온 것으로, 백제문화권과 내포문화권의 불교문화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충남도 불교발전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도는 이번엔 확정된 개발계획을 토대로 내년 상반기 중 세부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며, 단순한 개발에 그치지 않고 불교 문화 등에 대한 철저한 고증과 연구를 통해 그 가치를 재조명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과 관련해 정암 스님(수덕사 박물관장)은 "개발 과정에서 문화유적 복원과 그 가치를 소홀히 한다면 내포문화권은 단순한 관광지로 전락할 수도 있다"며 "내포지역의 문화와 정신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넓힐 수 있는 차원에서 개발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uhan@buddhapia.com

### 남양주 성관사 인근 환경위험

남양주 성관사(주지 토진)가 절 인근 평주민의 변칙적인 토지 개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성관사 총무 광진 스님은 12월 7일 "절 인근 토지 소유자가 임야를 개발하기 위해 타인에게 8개동 16채의 건물을 짓는 것을 허락하는 토지사용허가서를 써주고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며 "건축 계획을 살펴볼 때 허가를 받은 후 고급펜션으로 전환해 무분별한 개발에 나서려는 알뜰한 술수처럼 보인다"고 주장했다.

11월 26일 남양주시청에 제출된 토지현황 변경 및 건축허가신청서에 따르면, 성관사에서 70m밖에 떨어지지 않는 2300여 평 일야에는 앞으로 30평 규모 주택 8채와 20평 규모 창고 8채가 세워진다. 땅 소유자는 1999년에도 절 바로 앞에 가구공장 목적으로 6개동의 건물을 지으려다 시청에서 건축 계획이 반려돼 성관사와 합의하여 3개동의 공장을 지은 바가 있다.

이광길 남양주 시장은 7일 토진 스님의 면담에서 "성관사의 수행환경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남양주시 녹지과는 8일 성관사로 "건설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허가를 해주겠다"는 방침을 알려와 갈등이 커지고 있다. 성관사는 교구본사인 불전사와 함께 이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김영신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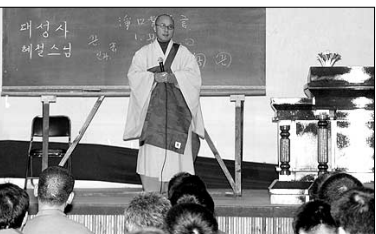
### "방부병원을 살립니다"



방부불교병원에 입원 중인 스님들이 12월 5일 불교병원 발전을 위한 법회를 열고 있다.

경영남으로 위기에 처한 불교병원을 살리기 위해 지역 스님들이 발벗고 나섰다. 광주 방부불교병원에 입원중인 스님 10여명은 12월 5일 병원 1층 로비에서 '불교병원발전과 환자 쾌유를 위한 천도제'를 봉행했다.

### 옥천 대성사 청주교도소 위문



### 경영남...지나 5일 발전법회

입원환자 50여명이 동참한 이날 천도제는 불교전통의식대향장 해공 스님의 집전으로 3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해공 스님(해광정사 주지)은 "최근 경영남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불교병원 살리기 위해 천도제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방부불교병원은 대학생불교학생회 출신 흥기표 원장의 발원으로 건립된 250여 병상의 준중환병원으로 지난해 11월 개원 이후 1000여명의 스님에게 건강검진과 진료를 무료로 해주고 있다. 현재 방부불교병원은 인근 교회에서 '불교병원 간판 내리기 작심기도'를 하는 등 어려움 속에 경영남까지 걸쳐 '불사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062)221-3204 이준엽 기자

옥천 대성사(주지 혜철)는 12월12일 청주교도소를 방문, 위문법회를 가졌다.

청주교도소 대강에서 열린 이날 법회에서 혜철 스님은 "이웃에게 부처님 이야기하며 잘 사는 길"을 주제로 법문했으며, 신도회는 빵과 우유 등을 제공하며 이들을 위로했다.

대성사는 5년째 매월 한 차례씩 정기적으로 청주교도소 위문법회를 열어오고 있다. 한명우 기자



지금, 우리 곁에서...

### 옥천 백운사

## 작지만 알찬 포교 도량



지난 10월에 백운사에서 열렸던 마을 어르신 위안잔치 모습. 백운사는 해마다 경로잔치를 여는 등 마을 사람들의 휴식처 역할을 하고 있다.

충북 옥천군 청산면에서는 유일한 사찰인 백운사. 어린 아이 할 것 없이 이 마을 사람들에게 백운사는 사찰이 라기보다는 휴식처다. 50년 전 절이 생길 때부터 그랬다. 마을을 먹여야만 가게 되는 곳도 아니고, 그렇다고 1년 내내 가지 않더라도 이상할 것 없는 쪽 이웃집 같은 곳. 청산면 사람들에게 백운사는 그렇게 따뜻한 곳이다.

백운사가 위치한 자리는 바로 고려시대 지어졌다가 조선시대에 폐쇄된 것으로 추정되는 100여 평 규모의 망일암이 있었던 절터라고 한다. 여기에

터라도 편안하게 요양할만한 곳이 없는 노인들을 위해서다.

사실 백운사는 기도처이자 포교 도량으로 잘 알려진 곳이다. 마을과 인접해있기는 하지만 조용하고 한적한 분위기에 기도하기에는 그만이다. 백운사의 어린이·학생·청년회 법회 역시 백운사의 자랑이다. 20년 넘는 전통을 이어오며, 옥천을 대표하는 신행단체로 자리 잡았다. 학생회와 경유는 아이들 스스로가 법회를 꾸려갈 정도로 높은 수준에 올라왔다. 청년회원들은 농사일로 시간 내기가 쉽지 않

### 조선시대 망일암 범종 복원 조성 계획

### 어린이·학생·청소년 법회 20년 전통 자랑

는 몇 백 년을 하루같이 새벽의 정적을 깨뜨리며 은은하게 들려오는 종소리가 모든 중생을 편안케 해주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망일암의 새벽 종소리가 청산의 아름다운 경치와 문화를 대표하는 '청산팔경'의 하나였다고 하니, 그 소리의 깊이는 짐작하고도 남는다.

백운사가 가장 비중을 두고 있는 계획은 바로 그 종소리를 주민들에게 되찾아 주는 것이다. 백운사 주지 범명 스님은 "범종을 조성해서 마을 주민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자비의 소리를 들려주고 싶다"고 말한다.

범명 스님은 노인 요양원 건립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돌봐줄 자식이 없는 노인들도 있고, 자식이 있다고 하

는 일상에서도 법회를 거르는 법이 없다. 여기에도 매년마다 대불련 수련회도 열리고, 인근 군부대로 백운사에서 법회를 본다.

작은 절이지만 백운사가 우수한 포교도량이 되기까지는 주지 범명 스님의 노력이 컸다. 관음종 총무부장이기도 한 범명 스님은 이곳에서 24년 동안 밤낮으로 뛰었다. 지금도 대전교도소 교화협의회 수석부회장, 옥천사암련 명예회장, 옥천경찰서 경승, 옥천항토연구회장 등 10여 개의 단체의 책임자이자 구성원으로서 포교활동에 여념이 없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백운사는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며 내일을 맞고 있다. (043)732-8278 글·사진/옥천=한명우 기자

**乙酉年 새해에 떠나는 불교TV 대만/화련 불교성지순례**  
 2005. 1. 12(수) ~ 1. 16(일) 4박 5일 일정 금액 930,000 원

**제1일**  
 인천.....출발  
 타이페이.....도착 중식 후 중정기념관 방문  
 대중.....일원담, 원장사, 문무묘 순례

**제2일**  
 대중.....아침 공양 후 출발  
 고을.....용호담, 춘추각 순례 / 불광사 순례

**제3일**  
 고을.....불광사 새벽예불 / 국내선으로 화련 이동  
 화련.....태노각 협곡, 아미족쇼 관람 / 기차로 타이페이 이동  
 타이페이.....도착 / 발맞사지

**제4일**  
 타이페이.....국립고궁박물관 / 중원사 / 야류해안공원  
 양명산 순례 / 온천욕 / 용산사 / 야시장 견학

**제5일**  
 타이페이.....육신불 모셔진 자함사 순례 / 공황으로 이동  
 인천.....도착

**지도법사**  
 광덕사 주지 예인스님

불기 2549년 신년을 맞이하여 불자님 108분을 신칙순례로 접수합니다.

불교TV 사업부 ☎ 02-3270-3333 / 887-2148 여행매니아 02-720-8828 www.btn.co.kr